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7호 【루계 제26011호】 주체107(2018)년 5월 1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인디아공화국 정부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인디아공화국 정부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에게 1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인디아외무성대표단 단장인 비제이 꾸마르 싱 국무상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그루빠 위원장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그루빠 위원장과 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6일 안또니오 라찌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영원한 수령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민주콩고신문 《라 프로스페리테》는 《김일성주석의 의리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오늘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20세기 현대조선사와 세계정치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신 김일성주석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주석께서는 남달리 인정이 많고 의리심이 깊으시였다.

그 높으신 인덕으로 하여 주석께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동지들과 벗들이 많았다.

김일성주석과 친분관계를 맺었던 외국의 벗들속에는 정치인들뿐아니라 기업가, 종교인, 언론인, 학자 등 각계인사들이 다 있었다.

지금도 주석과 인연을 맺었던 많은 외국인사들은 그이의 고매한 인품과 덕망, 깊은 의리심에 대해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기관지 《파블리크 텐즈》, 에티오피아신문 《포춘》, 앙골라신문 《우 빠이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탄자니아신문 《우후루》,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김일성, 20세기의 위인》, 《김일성주석의 태양의 미소》,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혁명생애》 등 제목의 글들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며 한평생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하신 세계정치의 걸출한 원로이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위인상을 칭송한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반향을 상세히 전하고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잠비아신문 《브랜드 라인 뉴스》, 짐바브웨신문 《헤랄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전국업적》, 《자주외교의 거장》, 《사회주의조선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친의 한평생》, 《영원한 태양》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였다.

이란의 일나통신,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로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투철한 자주외교로 세계외교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시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많은 사실들중 일부를 전하였다.

라오스신문들인 《빠싸손》, 《빠텟라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각하를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그것은 주석의 전국업적이 그만큼 위대하기때문이다고 강조하고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타이의 《성삼일보》, 만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예술, 고매한 인품에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우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벨라루씨신문 《브베로드》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고 조선의 당과 군대, 국가의 창건자이시며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공적은 실로 거대하다, 그이의 위업은 김정일동지에 이어 김정은동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올해에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발전소건설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
강원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 도적으로 통이 크게 진행되는 여러개의 군민발전소건설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당위원회들을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집중적인 사상공세로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불비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 자주 나가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특히 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이룩되는 혁신적성과들을 제때에 알려주어 각급 당조직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새로 일떠선 원산군민발전소의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의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발전소건설에 더욱 분발해나서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 직관물들과 표어들을 전개하고 드세찬 방송선전을 들이대여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군민발전소건설장들을 찾은 일군들은 건설자들에게 혁명적도서들도 안겨주고 현시기 제시된 당정책들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알려주어 그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언제와 물길굴공사를 비롯한 맡은 공사에서 혁신을 창조하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와 각 려단의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위치를 정하고 건설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일군들을 언제건설장들과 물길굴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공사장들에 파견하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정치사업의 실효를 높이게 하고있다.

원산시와 금강군, 이천군과 세포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방송선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포성이 건설장들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림업관리국과 원산항을 비롯한 도급기관 당조직들의 일군들은 전투현장들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그대로 발전소건설성과에로 이어지고있다.

련두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이천군에서 딸려나온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방대한 공사대상의 하나인 고성군민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여 언제공사와 물길굴공사에서 앞서나가고있다.

세포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도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언제건설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최근에만도 방대한 언제가배수로콩크리트치기와 중심강토굴착에서 많은 몫을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물길굴건설을 맡은 도림업관리국대대를 비롯한 물길굴건설려단에서는 압축설비들과 착암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굴진방법을 받아들여 때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회양군민발전소와 평강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건설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언제공사와 물길굴공사, 발전기실기초굴착공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군민발전소건설장들마다에서 집중적으로, 공세적으로 벌어지는 화선식정치사업에 고무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과 건설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능력이 큰 인공잔디생산기지가 일떠섰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이들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설비와 그 부속품들을 100% 자체로 제작하고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잔디실의 굵기나 두께 등의 질적지표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에서는 능력이 큰 인공잔디생산공정건설을 전개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기술준비에서부터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달라붙었다. 인공잔디의 기술지표를 국제규격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운 일군들은 공정별로 기술연구력량을 조직하고 해당 단위 연구사들과 함께 지혜를 합쳐나가도록 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특별한 기술참고자료도 없었지만 질좋은 인공잔디생산을 위해 설계도면의 점파선, 수자 하나하나에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림송동무는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협력하여 혁신설비의 하나인 식모기의 구조를 독특하게 설계하였다. 결과 식모기의 분당 회전수를 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식모기술도 세계적추세에 맞게 확립함으로써 인공잔디의 질적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자기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설비제작전투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1 500여종에 8 000여개에 달하는 부속품가공을 맡은 공무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적요구가 높은 그 어떤 부속품가공도 손색없이 밀고나갔으며 공업시험소, 염색종합직장, 온조직장, 건방종합직장 등 여러 생산단위들에서는 현행생산을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맡은 설비제작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개에 달하는 설비들을 훌륭히 제작하고 엄마전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시험생산결과 인공잔디의 자름면이 버들잎모양이 아니라 세계적수준에 맞게 말발굽형으로 되여 자외선에 의해 인차 로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수명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잔디를 밟았을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탄성률은 100%에 이르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1.3m폭의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확립한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요에 따라 4m폭의 인공잔디도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에 또다시 달라붙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공잔디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단천전역에 타오르는 총공격전의 불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대흥지도국려단의 건설자들이 40여일동안에 백수십m의 기본물길굴 굴진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려단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일판을 통이 크게 전개하고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였으며 힘있는 화선식선전선동사업으로 굴진전투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지휘관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으로 대오를 이끌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주고 설비,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려단의 건설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평차련결대수를 2~3대로 늘여 지난 시기에 비해 비력처리와 굴진속도를 훨씬 높이였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답게 강원도중대 돌격대원들이 전렬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작업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로력조직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고 립체전, 전격전을 벌려 날마다 높은 전투실적을 올리였다.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할 열의안고 황해북도, 황해남도중대의 착암공, 발파공들은 암질조건에 맞게 천공배치와 각도를 바로 정하고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계획수행률을 높이였다.

자강도, 함경북도중대에서는 설비들에 대한 엄간점검, 자검자수를 깐지게 하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평안북도중대의 돌격대원들은 내부에 비를 직극 탐구동원하여 부족되는 설비,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착암기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맡은 과제를 110%로 초과완수하였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밑에 대흥지도국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친선참관단이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친선참관단이 16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조선로동당 친선참관단 단장인 박태성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위원장동지께 자신의 진심으로 되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친선참관단의 중국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중국이 두 나라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는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김정은위원장동지와 두 차례나 만나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과 지역 및 국제정세 등 해당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인식을 이룩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조선당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국제사회는 광범한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있으며 중국도 이를 높이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는 쌍방이 당과 국가건설에서의 경험을 교류하고 단결을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을 공동으로 추동할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박태성동지는 습근평총서기동지가 조선로동당 친선참관단의 방문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문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중국인민이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면서 그는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이룩하신 합의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담화는 시종 통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지재룡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왕호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정설상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 결속
평안북도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려는 드높은 열의안고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적기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알곡증산의 예비는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도입하는데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시, 군들에 우량품종의 강냉이종자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을 도입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앞세워나갔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한개 시, 군씩 맡고 내려가 협동농장들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강냉이포전들에 실어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또한 기후적특성에 맞게 도안의 모든 농촌들에서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 적기를 바로 정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도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계절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물보장대책도 앞세웠다.

신의주시, 룡천군, 염주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먼저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피현군에서는 수천정보의 강냉이밭들에 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을 도입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를 잘하였다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삭주, 대관, 창성, 벽동군들에서도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에 력량을 집중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운산군과 철산군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적기를 바로 정하고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강냉이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가 결속된데 맞게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냉이포전들에서는 파란 잎새들 한껏 펼친 강냉이포기들이 풍요한 가을을 예고하며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서두수3호발전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령도, 불멸의 70성상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가 9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천만군민의 심장을 더더욱 세차게 높뛰게 한다.

얼마나 긍지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행로인가.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그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이였다.

땅도 그 땅, 민족도 그 민족이건만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년대와 세기를 넘어 가장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으로, 가장 힘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으니 어찌 천만의 심장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달아오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보다 룡성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넘쳐날수록 이 땅우에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자립경제의 토대를 억척으로 다져주시어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이 꽃피여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굳건히 담보해주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눈부신 모습을 대할수록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경제적자립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독립도,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도 담보할수 없다.

세상을 돌려보면 한때 급속한 경제장성을 떠들던 나라들이 외부의 경제적압동과 압력에 의하여 기업제들이 무리로 녹아나고 그로 하여 급속적인 운명을 강요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그 얼마인가.

그것은 필두절미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경제를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 얽매인 예속경제, 예속공업으로 빚어진 후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튼튼한 자립경제에 기초하고있기에 그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고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다.

력사의 폭풍을 맞받아 과감히 전진해온 우리 조국의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되새겨볼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에 고동치는 진리가 있다.

이 땅에 이룩된 모든 기적과 전변, 천만군민이 누리는 행복은 대대로 받아안는 수령복의 결실이라는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무대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공연이 끝난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 노래를 들으며 모든것이 폐허로 된 빈터우에서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가 되새겨져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립경제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

해방후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건국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며 일떠서기 시작한 청소한 우리의 경제토대는 그 나마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벽돌 한장 성한것 없이 모든것이 재더미속에 파묻혔다.

미제는 100년이 걸려도 우리가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며 일떠섰고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남들이 걸어온 공업화의 수백년력사를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자체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건설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전후에 수정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우리 나라도 국제분업과 통합경제로선을 제창하는 쎄브에 들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내리먹이려고 이모저모로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한테 기계설비를 팔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쇠돌을 팔면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것은 빈 굴밖에 없을것이다, 우리가 자체로 기계설비를 생산하여 당신들에게 팔아먹을수 있게 될 때에 쎄브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대로 경제건설을 다그치려는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이 땅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나라들의 《고도성장》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원유화학공업과 원유발전소를 건설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일축해버리시였다.

세월이 멀리 흐른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원유가 나오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가져다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거나 원유발전소를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남에게 목을 쥐우는것으로 된다.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에서 원유화학공업과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였다가 다른 나라들이 원유를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걸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된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도 발전시키고 화력발전소도 돌리고있으며 또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자주의 신념과 천리혜안의 예지, 끝없는 헌신의 력사가 이 추억깊은 교시속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가.

경제적으로 남에게 얽매이면 결국 나라의 정치적독립도 공고히 할수 없고 방위력도 강화할수 없으며 종당에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수 있는것이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어이 제힘으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자립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아직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로역경을 헤쳐나가시며 이 땅우에 조국을 떠받드는 만년초석으로 될수 있는 수많은 중공업기지들과 경공업기지들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마련해놓으신것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의 룡성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룩하신 엄적중의 불멸할 엄적이다.

한편의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기어이 이 땅우에 자립의 한길을 따라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굳은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들었던 시련의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경제토대, 우리의 경제구조를 살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모든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지금도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던 어느해 1월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던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천만의 가슴을 울려준다.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대상들에 힘을 넣어 하나씩하나씩 생산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경제를 한꺼번에 추켜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개미가 뻐다귀를 야금야금 뜯어먹는 전술로 경제사업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

중요대상들에 힘을 넣어 하나씩하나씩!

이것은 당시의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묘책이였다.

우리 식 경제구조를 고수하기 위한 기본목표, 전술과 묘술을 밝혀주시며 초강도강행군길을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있어 우리의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높은 발전단계에로 올라설수 있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CNC공작기계가 태어나 이 땅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지펴지고 성강의 봉화가 타오른 력사의 고장에서는 주체철쇠물이 쏟아지였다.

라남의 기계제작기지에서는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새로운 기계들을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였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는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워 강철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번영의 리상을 실은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금지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사를 안아왔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 자립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며 세계는 진정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이 땅에서 놀라운 성과들과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던 그 시기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수백년간의 발전력사와 경제장성을 자랑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아우성을 치고있던 그때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이 무시무시한 동란속에서도 태연하게 있을것은 사회주의조선뿐이라는 글을 내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립경제에 대한 세계의 인정과 평가가 있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는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세인을 경탄케 하는 놀라운 성과들과 기적들이 세월을 앞당기며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립의 한길로!

이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철의 신념과 의지이며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기상한 혁명실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며 시대의 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경제를 주체화가 철저히 실현된 자립경제로 강화하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어찌 다 전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불과 몇해사이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릴수 있었다.

주체철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들을 팡팡 생산해내는 경공업부문의 공장들…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길에서 이룩한 그 모든 성과들은 진정 우리 조국의 굳건한 자립경제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열매들이다.

경제건설에서의 자립,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의 자랑스러운 행로와 보다 룡성번영할 래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으로 된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정녕 그날의 선언은 이 땅우에 강력한 자립경제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 조국을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분출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여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이 천만군민의 앞길을 고무추동하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채 히 성

김 영 남 동 지 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자까르따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죠 꼬 위 도 도 각 하

나는 인도네시아의 동부자바주에서 발생한 자폭테로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을 재확인하면서 테로를 근절하고 사회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5월 16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265호 주체107(2018)년 5월 11일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성천온정료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의봉사사업소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재료학부
평양외국어대학 동시통역연구소
경공업설계연구소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
평양대성차비귀공장
정천맹동공장
평양카스총진사업소
평천구역종합양복점
룡성구역종합식당
모란봉은하피복공장 재단직장
모란봉은하피복공장 2직장
광복모란상점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림화학공장
은산군학생소년회관
은산군은정원
청남구 신리농장 축산작업반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과수 제4작업반
숙천청년과수농장 락원작업반
성천군제신소
황남일보사 신문종이공장
해주시가내축산관리위원회
은천군 안리협동농장 제7작업반
해주옥계각
벽성군제신소
벽성군상업관리소
장풍군유용동물사업소
평산스레트광산
개성타올공장
개성은하피복공장
개성석회석광산
남산전자기구공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이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우리 당의 사상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 력사적경험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부터 지난 70여년동안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영웅적투쟁을 벌려 튼튼한 경제적토대를 다져놓았으며 오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도 마련하였다. 이것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쟁취한 커다란 승리이다. 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경제강국건설이 저절로 가속화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 다시말하여 자력갱생정신과 높은 과학기술력에 있다. 인민들의 자주정신, 창조정신이 부족하고 과학기술적자질이 높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고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침체와 답보, 파절을 면할수 없다.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대고조를 일으켜나갈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정신과 기풍은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조성될수록, 국력이 강화될수록 더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 때 우리의 자강력은 백배해지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빛나게 실현되며 최후승리의 날은 앞당겨지게 된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강위력한 무기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것이다. 우리가 내세운 투쟁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자면 경제활성화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에네르기와 원료, 자재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자력갱생, 과학기술에 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남을 희생시켜 리득을 챙기려는 미국과 그에 반발해나서는 여러 나라들과의 마찰과 무역분쟁이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는것은 어리석은것이다. 현시기야말로 오직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겠다는 정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기풍이 최대로 발휘되여야 할 때이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상승궤도에 올려세우는 확고한 담보라는것은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덕성협동농장은 경지면적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단위이지만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농사작황이 시원치 못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요인도 있지만 기본은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겠다는 정신이 부족하고 농사에서 과학기술을 홀시한데 있었다.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원인을 깨닫고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토양종류별비료주는 시기와 방법, 일기변화에 따르는 병충해방지대책 등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해나갔으며 지력과 기후조건에 맞게 알곡 대 알곡의 두벌, 세벌농사를 잘하여 소출을 높이였다. 결과 정보당 알곡 10t이상을 내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력갱생정신, 과학기술의 힘은 이처럼 위력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덕성협동농장의 모범을 본받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생산을 정상화하고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또한 이 땅우에 하루빨리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일떠세울수 있는 열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반드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지닌 인민만이 뚫까지, 철저히 수행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자력자강, 자급자족하자면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적창조의 기본에비는 과학기술에 있다.

류원신발공장에서 타번지고있는 대비약적혁신의 불길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해당부문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긴장한 투쟁을 벌려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지난 시기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야 한다고만 생각하던 설비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국산화비중에 있어서나 생산공정과 경영관리의 현대화에 있어서, 제품의 종류와 수량, 질, 로동생활조건에 있어서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새로 개건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증산의 동음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우리의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오늘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와 경험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우리 나라를 경제분야에서도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선진국가의 지위에 하루빨리 올려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 자급자족만이 살길이고 번영의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철리를 뼈에 쪼아박고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정 태 봉

어로전에서 중시하신 문제

세인을 놀래우며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황금해의 새 력사와 더불어 진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이였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당에서 제시한 솔어일수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어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어장을 타고앉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어장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들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부문에서는 해양상태가 변하는데 맞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고기를 따라가면서 잡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낡은 물고기잡이 방법에 매달려가지고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물고기잡이의 과학화, 이것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관건적문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자면 기업소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과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고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어 플플리화면에 위성으로 관측한 이날의 바다물온도자료가 현시된것을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종업원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면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꾸려놓는데만 그치지 말고 세계적추세에 맞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갖추어놓고 누구나 적극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폐부로 절감하면서 과학적인 어로전을 적극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기적을 창조할 결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인민경제 선행부문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자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도록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동력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것이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동력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련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할 때였다.

새로운 철생산공정을 확립하는 방대한 사업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력부문앞에도 어려운 과업들이 나섰다. 당시의 실정에서 엄청난 동력계통공사를 련합기업소가 계획한대로 내민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고압차단기, 각종 변압기들과 배전반들을 비롯하여 동력계통의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였기때문이다.

그때 단위의 일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기하였다.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들은 전문적으로 전기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에 주문하여야 한다, 우에 제기하여 풀어야지 자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이것을 놓고 김광철초급당위원장의 생각은 깊었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우만 쳐다보며 손을 내미는 의존심은 자기 힘을 믿지 않는데서부터 생겨난다.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없이 어떻게 방대한 동력계통공사에서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결정적으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어야 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방법론있게 풀어나갔다.

우선 실천투쟁속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이 제일이며 제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대형산소분리기 기동용변압기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것이 좋은 실례이다.

사실 기동용변압기는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이다. 련합기업소적으로도 중시하는 대상이였다. 그것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오자면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의 공정기일을 보장할수 없었고 자금도 많이 들어야 했다.

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당, 행정일군들의 협의회만도 수없이 진행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군들은 물론 당초급일군들도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알려주고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이 박력있게 진행되는 속에 기동용변압기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는 과정에 혁신적인 안이 나오게 되였다. 동력1직장에 있는 변압기를 개조하자는것이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이것이 실천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초급당일군들이 걸린 문제를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는 한편 힘있는 직관선동과 후방사업으로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전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짧은 기간에 변압기를 개조해내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잡히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적극 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이 단위에 가면 직장, 작업반별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해 갖추어놓은 함을 볼수 있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다 발동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용수1직장 직장장 김영남, 기계수리공 송동춘, 전기수리1직장 전기기구조립공 조철웅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동력계통의 개조와 보수에 필요한 사기애자, 철판, 환강, 전류계, 각종 볼트 등 수많은 유휴자재들을 확보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직장, 작업반, 개인별로 유휴자재확보정형을 알아보았다. 리끌모아 큰 산이라고 종합해놓고보니 그 량이 적지 않았다. 아침모임시간을 계기로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단위와 종업원들의 긍정적소행들을 알려주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짧은 기간에 170여종에 4만여점의 부속품을 비롯한 많은 내부예비가 조성되게 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위한 동력계통의 설비개조와 보수에 크게 이바지되였다.

오늘도 이곳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자신들도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 한몫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깊이 간직되여있다.

대중의 심장속에 제힘이 제일이며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어 성과를 거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김혁철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비상한 각오를 안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화선에 나가 선구자적역할을 다하자!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리동철초급당위원장부터가 화선에 나가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였다.

신병으로 움직이기 힘든 형편이였지만 그는 9갱 채탄3중대 막장을 찾아가 탄부들에게 후방물자를 넘겨준 다음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대였다. 동발나무를 나르고 탄차도 밀면서 일하느라니 작업복은 화락하게 젖어들었다. 쉴참에는 탄부들에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계발시키였다. 초급당일군의 일본새에 감동된 채탄공들은 분발하였다.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그날 탄풍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이 소식은 탄광안의 모든 일군들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대중의 마음속으로, 전투장한복판에 뛰여들어 일판을 벌렸다.

지난 4월말 초급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조직부 일군들은 11갱의 채탄막장에 들어갔다.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탐탐한 막장에 일제히 들어간 일군들은 새벽교대작업을 하는 탄부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300hp권양기때문에 생산이 처지고있다는것을 알고는 그길로 공무직장에 달려가 그곳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수심리나 되는 막장길을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고 손에 기름칠을 하면서 도와나서는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이곳 로동자들은 6시간이 걸려야 수리할수 있다고 하던 권양기를 2시간동안에 수리하였다. 이 소식은 11갱의 채탄공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무렵 선전선동부의 일군들도 담당한 10갱의 채탄3중대 막장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붕락된 막장을 복구하는 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무릎까지 빠지는 죽탄속에서 동발을 세우고 설비들을 되살려 짧은 시일안에 증산의 동음이 울리게 했다.

하루일이 끝난 저녁에는 독장골지구에서 살고있는 채탄1중대의 한 채탄공의 가정에 찾아가 생활형편도 알아보면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탄부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탄광일에 몸을 잠그지 못하고있던 종업원들이 막장에 나와 어려운 일에 어깨를 들이댔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과장이상의 행정일군들도 갱, 굴진중대, 채탄중대, 굴진소대, 채탄소대를 맡고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지상단위 종업원들도 작업굴진을 도와나섰고 직동과 새마을동의 녀맹원들은 돌격대활동으로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돋구어주었다. 그것은 곧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동무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몫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워가고있는가.

모든 일군들은 시대의 이 물음에 뜨거운 실천과 높은 실적으로 떳떳이 대답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불같은 헌신으로 대중을 이끌어

강계철도분국 강계철길대 초급당위원회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우리 당일군들의 투쟁기풍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답을 주는 강계철도분국 강계철길대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도 하나의 힘있는 선동입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건하-만포사이의 어느 한 철길구간에는 장마로 인한 큰물피해로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난관이 조성되였다. 골짜기마다에서 사품치며 쏟아져내리는 사태로 하여 로반밑으로 뚫은 90여m의 물길관이 통채로 떠워졌다. 조금만 지체하면 많은 면적의 로반이 비물에 씻기여 통채로 떠내려갈수 있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현장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참가밑에 당원들의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에서는 방도가 토의되였다.

로반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림시로 뚝을 쌓아 물길을 다른데로 돌리는것과 함께 진흙과 감탕으로 막혀버린 물길관을 열자는것이였다.

협의회를 마치며 최종성초급당위원장은 이렇게 그루를 박았다.

《두줄기 철길우에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철길원들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초급당일군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당원들이 어떤 점사의 각오를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가를 새겨주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렇게 되여 공사장에서는 대장 주수길동무의 지휘밑에 뚝을 쌓아 물길을 돌리기 위한 공사와 물길관을 관통하기 위한 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전투의 앞장에는 언제나 초급당일군이 서있었다.

쏟아져내리는 폭우에도, 사품치는 격랑에도 아랑곳없이 대오의 앞장에서 종업원들을 이끄는 초급당일군의 모습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였다.

작업이 제일 불리한 곳은 물길관을 관통하는 장소였다. 기계수단도, 많은 로력도 댈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부득불 비좁은 관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감탕을 퍼내야 하였다. 한두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 한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작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 앞장에 바로 초급당일군이 섰다.

그들이 물길관안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무엇이였던가.

《위원장동지, 앞장엔 제가 서겠으니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팬찮소. 동무야 전번 침목교체작업때 허리를 다치지 않았소. 불편하지. 들어오지 말걸 그랬소.》

《김동무, 그 장갑이 헐었구만. 나와 바꾸어끼자구.》

…

초급당일군의 이런 이신작칙과 뜨거운 전정은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을 달아주었다. 그리하여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작업과제를 12시간만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찍어간 헌신의 발자욱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파오로 마음속고충을 겪고있던 성간철길소대 한 철길원을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떠밀어주어 그가 당원으로, 초급일군으로 성장하도록 한 이야기, 수십kg의 기공구를 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철길에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는 한 철길순회원의 당적량심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온 철길대가 알도록 적극 내세워준 이야기, 당의 높은 신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가도록 신청리철길소대의 락석감시원부부를 떠밀어준 이야기…

무수하게 찍어간 당일군들의 발자욱이 있어 강계철길대 종업원들은 오늘도 당중앙의 뜨락에 피줄을 잇고 애국의 한길만을 뜻뜻이 걸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최영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회령시목재가공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높은 전력생산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초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발전소가 새로 조직되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걸린 문제들이 많았다.

일부 사람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리봉철초급당위원장이 이곳 발전소에 새로 임명되여왔다. 그는 발전소의 전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무엇보다먼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뜨겁게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때부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사업의 주선을 우리 당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데로 지향시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부터 짜고들었다. 이 사업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고 영생탑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사상교양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 과정에 발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적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두같은 충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전력생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공정들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김강일지배인을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이 대중의 거울이 되여 많은 일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최근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발전설비들과 전력생산공정을 첨단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 발전기들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빛내여나가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우리는 당조직들이 당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된다.

본사기자 채인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청년동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는 보고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온 나라 청년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경제건설대진군을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며 모든 청년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앞장서도록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정신과 자력갱생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동맹원들에게 깊이 체득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청년동맹일군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서 동맹원들과 숨결을 같이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헌신의 투사, 완강한 실천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청년들이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밑에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위대성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동맹원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방침과 지시를 즉시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혁명적규률과 사업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동맹사업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복종지향시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더 높이 떨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직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업들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각급 직맹조직들이 동맹원들속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과 투쟁과업,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사업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철저히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며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의 요구대로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직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받들고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맹조직들에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과학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더욱 분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동맹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야전형의 일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더 높이 떨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날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리원해운사업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사리원해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 5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57(1968)년 5월 황해북도안의 경제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묶소 김성포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가 부두를 건설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강목과 깊이도 헤아려보시며 친히 부두와 잠문위치도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에서 김성포운하공사를 전망성있게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갑문을 건설하고 배길을 개척하며 김성포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진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강력한 건설력량과 기술집단을 무어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 갈대숲만 무성하고 갈게촌으로 불리우던 김성포에는 짧은 기간에 화물부두와 려객부두, 려객역사를 갖춘 김성포항이 생겨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이 있어 사업소는 개항 첫날부터 지난 수십년간 려객수송은 물론 인민경제 여러 단위와 중요건설장들에 화물을 원만히 수송보장하는 믿음직한 해상운수기지로 훌륭히 변모되였다.

이 나날 사업소당조직에서는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려객수송과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김성포를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박광철, 박성철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고 구내에 당의 구호들을 게시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들은 수천그루의 나무와 꽃관목들을 심어 혁명사적표식비주변을 원림화하였으며 사업소구내를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항운영과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지난 기간 사업소에서는 150여건의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항만기중기의 상하선능력을 5배로 높이고 려객수송을 천만히 보장하였다. 그리고 150t급의 자행부선도 자체로 훌륭히 건조하고 선박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업소가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불타는 열의를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사업소는 26호보범기대영예상,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로 되였으며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단위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오늘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려객수송과 화물수송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특파기자 신경섭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생산정상화의 기본고리 - 기술혁신

평양양말공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그가운데는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현대적으로 일떠선 평양양말공장도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현대적인 양말생산공정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새롭게 착상하고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이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려갈 온 나라 인민들의 밝은 모습들을 그려볼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에 접한 평양양말공장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의 구절구절이 가슴속에 파고들었기때문이였다.

(기어이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품의 질도 높이고 생산도 정상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조금주지배인의 생각은 곧 실천에로 이어졌다.

하여 시작된것이 볼수강실토리생산전투였다.

양말생산공정에서 어느것이나 다 중요하지만 이 볼수강실토리는 염색공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품이였다. 한번 염색하는데 필요한 실토리가 200여개나 된다고 볼 때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요구되는 량은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이것을 수입하겠느냐 아니면 자체로 만들겠느냐 하는 선택의 길에서 공장일군들은 주저없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다.

얼핏 보기에는 많은 구멍들이 뚫린 자그마한 볼수강판이였다. 하여 처음에는 몇몇 기능공들로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분품개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단순하게만 보이던 구멍들의 수와 직경, 배치가 다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하고있었다. 잘못 설계제작하면 염색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결국에는 제품의 질을 담보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과학적론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다는것은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부분품개발집단성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볼수강실토리의 원리를 파악하고 우리 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낮에 밤을 이어 계속하였다.

연구사업에서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이들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그 믿음을 되새기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다.

창조와 헌신의 날과 달속에 설비과의 명히전동무와 한영철동무를 비롯한 공무작업반 성원들은 구멍의 직경을 크게 하여 구멍수를 줄이면서도 요구되는 염색성을 보장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되였다. 이들은 앙양된 기세를 더욱 분출시켜 볼수강판에 자그마한 흠집도 없이 구멍을 뚫을수 있는 용접기와 효률높은 절단기도 제작하였다. 이제는 공장에서 염색에 필요한 볼수강실토리를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생산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일군들부터가 기술혁신운동에 앞장서니 여러 직장들에서도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 앞장에는 지난해 2중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은 녀자양말직장이 서있었다.

직장에서는 열처리기를 거쳐 나오는 긴양말의 목고무부분이 항상 젖는 결함이 나타나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많은 종업원들이 증기압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목고무부분이 마를 때까지 공정을 계속 반복하여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는 과정에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해나가려는 자기들의 열의가 떨어지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하여 리혁철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종업원들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열처리기의 개조에 달라붙었다.

모두가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기발한 착상도 나오고 어렵게만 보이던 문제해결의 돌파구도 열렸다. 이 나날에 많은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운동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였으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려는 각오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연한색염색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여 많은 전기와 물을 절약하면서도 염색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준비직장에서도, 지난 기간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남자양말직장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다.

공장의 기술혁신사업을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양말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한 기술혁신성과들이 지난 몇년어간에 수백건이나 된다는 기사장 김미경동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생산정상화의 우렁찬 동음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힘찬 숨결과 함께 과학기술중시열풍을 느낄수 있었다.

이런 애국자들이 나라의 경공업부문을 굳건히 지켜서있기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보다 더 윤택해지는것이 아니랴.

지금도 평양양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질좋은 양말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현

실리가 큰 새로운 용존산소분석기 개발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비와 생산공정, 제품포장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쳐야 합니다.》

최근에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의 과학자들이 측정정확도가 매우 높은 용존산소분석기를 개발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새로 개발한 용존산소분석기는 물을 비롯한 각종 용액속에 풀려있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 및 조종하기 위한 첨단수준의 설비이다.

각종 용액속에 풀린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조종하는것은 교육부문과 과학연구부문, 식료공업부문과 양어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세계적으로 효모배양공정이나 양어장 등에서 용존산소농도의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여 적은 원료와 자재로 생산물의 질과 생산성을 최대로 보장하면서도 전기와 자금을 극력 절약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된 여러가지 용존산소분석기들이 개발되여 널리 보급되고있다.

황용만, 정철국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문헌연구를 심화시키고 지금까지 개발된 용존산소분석기들에 대한 파악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으면서도 구조가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은 우리 식의 용존산소분석기를 개발해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과학자들은 높은 측정 및 조종정확도를 요구하는 배양공정이나 과학연구사업에서 용존산소농도의 측정과 조종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기본을 두고 연구를 심화시키였다.

용존산소분석기를 기어이 우리 식으로, 그것도 첨단수준에서 개발해낼 드높은 민족자존의 정신을 안고 이들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피타는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 과정에 과학자들은 공업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수명이 길고 측정정확도가 높은 잠김식용존산소수감부를 새로 제작해내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용액속의 산소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측정체계와 통신체계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용존산소분석기는 측정정확도가 매우 높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으로 하여 제작과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우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용액속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조종용콤퓨터에 보내주는 통신체계도 가지고있으므로 용존산소농도를 자동조종하는데 적합하다.

용존산소분석기를 효모배양공정에 도입하여본 결과 배양액속의 산소농도에 맞게 공기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됨으로써 귀중한 전력을 절약하고 공기전처리에 필요한 설비들의 리용효과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

다루기 편리하고 측정정확도가 높으며 용존산소농도조종을 자동화할수 있게 하는 첨단수준의 용존산소분석기개발기술이 확립됨으로써 용액속의 생명유기체를 다루는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많은 로력과 전력,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식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전력의 리용률을 높이는 강행교류접촉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의 과학자들이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첨단수준의 강행교류접촉기를 개발하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강행교류접촉기는 전력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접촉기수명을 늘이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믿음직하게 동작할뿐아니라 동작과정에 소음, 진동이 없는 등 좋은 기술경제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첨단기술제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기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생산된 전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우리 식의 강행교류접촉기를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지난 10여년간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강행교류접촉기는 일반교류접촉기에 매개 접촉기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강행요소와 조작회로를 결합하여 만든 장치이다.

세계적으로 새로 생산하는 교류접촉기는 물론 현재 설치리용되고있는 교류접촉기들에도 강행교류접촉기기술을 받아들여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고있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창원선생을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갈 일념을 안고 초행길과도 같은 연구개발사업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연구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류접촉기의 종류와 규격이 각이한데 맞게 개발하여야 할 강행교류접촉기들의 가지수도 많은것이였다.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첨단과학연구성과들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선행문헌에 대한 연구사업과 함께 실험실에서 대비실험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강행교류접촉기들의 특성에 합리적인 정수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확정해나갔다.

대학과 학부의 일군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며 능력있는 과학자들을 연구집단에 망라시켜주어 연구개발사업이 최단기간안에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 과학자들은 일반교류접촉기들을 여러 계렬로 구분하여 도입할수 있는 새로운 강행교류접촉기기술을 개발하게 되였으며 강행교류접촉기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생산기지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꾸려놓게 되였다.

개발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리용되고있는 수많은 교류접촉기들에 새로 개발된 강행교류접촉기기술을 도입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년간 절약되는 총전력량은 몇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하는 전력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한다.

지금 이들은 새롭게 개발한 강행교류접촉기들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효과적인 비료주기방법을 연구도입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에서

최근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전국적범위에서 재배되고있는 주요벼품종들에 대한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는 자랑찬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비료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농작물의 품종적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는것은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논벼재배의 다수확원리에 기초한 비료주기방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비료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오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우량한 벼품종들이 농업생산에 수많이 연구도입되고있는데 맞게 과학적인 비료주기방법을 따라세우기 위한 연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농업의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깊이 자각한 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각이한 생태지역들에서 주요벼품종들이 옹근소출을 낼수 있도록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에 큰 힘을 넣어왔다.

우리 나라에서 재배되고있는 주요벼품종들에 대한 비료주기를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는 지역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이 서로 다른 전국의 수십개 조사지점들에서 여러해에 걸쳐 품종별, 생육단계별에 따르는 방대한 시험자료들을 수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하지만 이곳 과학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서있다는 높은 책임감과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시험과 조사를 위해 현지에서 날과 달을 보내고 해를 이어가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귀중한 조사자료들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갔으며 그 과정에 우리 나라 주요벼품종들의 비료받는 특성에 맞게 생육시기별비료주기를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현실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혀내게 되였다.

이곳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심혈을 기울이며 이룩한 이 연구성과는 농업생산에 도입되여 비료의 효과성과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데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지금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각지의 농업생산단위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가치있는 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학직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생산정상의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서 나가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력생산에서 의의가 있는 어느 한 생산공정을 새로 꾸린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많은 원료들을 절약하면서도 탈염수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직장은 3중모범기술혁신단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인 전력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리붉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백암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추동하는 선전화들이 나왔다

조선로동당출판사와 평양미술종합대학에서 전체 인민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선전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당의 령도따라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그 기세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선전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은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할데 대한 사상을 담고있다.

《과학기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글발이 부각된 선전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과학교육사업을 혁명발전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을 강조하는 선전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도 있다.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 결속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가 결속되였다.

9조에 속한 우리 나라의 4.25팀과 중국 대북의 항원팀사이의 2차경기가 16일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4.25팀은 항원팀과의 1차경기에서 이미 5:1을 기록하였다.

경기시작부터 우리 팀 선수들은 주도권을 틀어쥐고 드센 공격으로 상대팀 방어진을 압박하였다.

선수호상간 째인 협동과 역습속공에 의한 문전돌파, 대담한 차넣기와 멋있는 꾸밈에 의한 벌차기 등으로 확고한 우세를 차지한 우리 팀 선수들은 경기시간 24분경, 28분경에 득점한데 이어 3개의 꼴을 련이어 성공시켰다.

경기는 4.25팀이 항원팀을 5: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결과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쟁취한 우리 나라의 4.25팀이 다음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습지의 보호와 합리적리용에 관한 민족토론회 진행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습지의 보호와 합리적리용에 관한 민족토론회가 1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정영남동지, 농업성,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편찬단위의 일군들과 양로넌 동아시아-오세아니아주철새이동경로협력기구 집행국장을 비롯한 외국손님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습지지역들을 철새 및 습지보호구로 선정하고 그 보호와 리용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해 습지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가 세계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국제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습지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역의 국제적인 환경협조》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습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텔레비죤편집물을 시청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문덕철새보호구와 라선철새보호구를 소개한 사진들을 보았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가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그루빠 위원장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는 16일 의례방문하여온 안또니오 라찌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그루빠 위원장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외무성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비제이 꾸마르 싱 국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인디아외무성대표단이 1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외무성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독자의 편지

친혈육의 정 그대로입니다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제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사회의 첫걸음을 뗀지도 어느덧 수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그 나날에 있은 가슴뜨거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왔을 때 부모는 이미전에 세상을 떠나고 가까운 혈육도 없다보니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따금 외로운 생각이 갈마들군 하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부모를 대신하여 저에게 혈육의 정을 부어주며 친부모가 되여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아닌 중앙은행 로동자 함경애동무와 그의 남편 최창수동무였습니다.

제가 이들의 손에 이끌려 그들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오늘까지 생면부지의 청년을 한식솔로 받아들이고 마음기울인 감동깊은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들은 제가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하도록 신심을 북돋아주었고 자기 자식들보다 더 보란듯이 내세우려고 은근히 진심을 썼으며 저의 몸이 축갈세라 닭곰과 오리곰도 자주 해주면서 정성을 기울이였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길에 올라 집에 들어설 때면 친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맞아주고 밥상에 따끈한 밥과 국을 올려놓으며 한가지 식찬이라도 더 놓아주려고 애쓰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친부모의 사랑을 느끼군 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고마운 우리 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겨안군 합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입니다.

락랑구역 정백1동 63인민반
박광혁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존경하며 따뜻이 돌봐주는 고상한 풍모

화목한 대가정에 미덕의 향기 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충만되여있는것인가.

전쟁로병의 친자식이 되고 청년들이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품어안아 키우는 고마운 어머니들의 소행은 어느덧 이 땅에서 례사로운 일처럼 여겨지고있다.

본사편집국으로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를 담은 편지들이 계속 오고있다.

대안구역 다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용철동무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물론 자기 농장원들을 친혈육처럼 위하고 아껴주는 참된 일군이다.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인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것은 우리 세대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그는 번함없는 한마음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적극 내세워주고있다.

온 농장의 관심어린 속하속에 전승절을 맞이할 때면, 가렬한 결전장에서 피젖은 공화국기를 지켜 목숨바쳐 싸우던 전화의 그 나날들을 새 세대들에게 감회깊이 이야기할 때면 전쟁로병들의 가슴은 조국해방전쟁참전자라는 영예감으로 더없이 높뛰군 한다.

선기가 날세라, 계절이 바뀔세라 건강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심해주며 색다른것이 생기면 전쟁로병들부터 찾아달려가군 하는 그의 진정은 얼마나 뜨거운것이던가.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만 꽉 차있다.

하기에 그는 뜻밖의 일로 자기 집을 대보수해야 할 형편이 였지만 마련해두었던 얼마 안되는 자재마저 남새온실건설에, 새 탈곡장과 락아소건설에 아낌없이 깡그리 바쳤다.

그가 관리위원장사업을 해온 나날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러나 농장원들의 아픔과 걱정을 자기의 아픔과 걱정으로 여기고 말없이 밤길을 걸으며 땀을 흘리는 젊은 관리위원장을 농장원들과 그의 가족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있다. 오늘도 멸사복무의 길을 묵묵히 이어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그를 두고 대안구역에 사는 김창남동무는 전지에 이렇게 썼다.

《이런 일군들이 많아 온 나라가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더욱 굳건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 청년대학생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는 정천구역 북성1동에 사는 영예군인 리명철동무의 편지도 참으로 가슴뜨거웠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의 마금철동무와 그의 학급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4년세월 친혈육의 정을 안고 영예군인을 위해 지성을 다하고있다.

국가적키넘일만이 아닌 평범한 날에도 때없이 찾아와 귀한 보약재들이며 품들여 마련한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면서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세세히 알아보며 영예군인의 아들의 학업성적에까지 마음을 쓰는 청년대학생들의 뜨거운 진정을 느낄 때마다 영예군인은 어찌면 그렇게 속이 깊을가 하는 생각에 절로 눈금을 적시군 한다고 한다.

군사복무시절 그때처럼 전투적으로 살라고 새로 나온 소설책과 노래집도 안겨주며 영예군인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알게모르게 밤길도 많이 걷는 마금철동무는 어제날의 제대군관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이였다.

우리 사회에서 영예군인을 아끼고 위해주는 사회적혜택은 얼마나 크며 영예군인의 안해들은 또 얼마나 나라에서 극진히 보살펴주는가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는 어린시절부터 옛말처럼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하기에 그에게 있어서 영예군인은 피를 나눈 전우와도 같았고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닌 학급학생들 모두에게 있어서 영예군인은 한식솔, 한가정이였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영예군인은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준 고마운 우리 당에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락랑구역 정백1동에 사는 박서일전쟁로병의 가정을 찾아 제일먼저 문을 두드린것은 출판지도국 로동자 김미란동무를 비롯한 그의 세포당원들이였다. 로병의 일흔번째 생일상도 친자식의 심정으로 성의껏 마련해주었던 그들이였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더욱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고, 전쟁로병동지의 당무를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는 그들을 바래워주는 로병에게는 김미란동무와 알고지낸 10년세월이 추억깊이 들어커졌다.

선기가 나면 감기에라도 걸릴세라 남먼저 걱정해주고 좋은것이 생기면 한밤중에도 때없이 문열고 들어서면 그 말없는 진정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쓸수 있겠는가. 최근에야 알게된 일이지만 그는 동지들과 이웃들을 위한 좋은 일도 소문없이 많이 찾아한다고 한다.

전쟁로병동지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 행복이 있는것이라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라고 온갖 지성을 다하던 그의 모습에서 혁명선배들을 존대해주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미덥고 훌륭한 새 세대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로병의 편지는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미풍의 주인공들은 어제도 태여났고 오늘도 태여나며 래일엔 그 대오가 더 많이 늘어날것이다.

누구나 미덕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회주의 우리 대가정, 이 제도에서 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참된 인간들은 바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만 태여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훌륭한 청년들

례사로운 생활의 단면에서 소중한것을 체험하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우리는 락랑구역 락랑1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최영길동무가 평양정보기술국 붉은별연구소 청년연구사들의 소행을 전해온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 시대 청년들의 훌륭한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중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연구소의 연구사들인 두정혁, 주성철, 김광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들이 영예군인 최영길동무와 혈연의 정을 맺은것은 5년전부터였다. 여기에는 언제나 혁명선배들의 고귀한 넋을 마음속거울로 삼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

5년전 어느날 저녁 두정혁동무를 비롯한 같은 초급단체의 청년동맹원들은 평천구역의 어느 한 영예군인전쟁로병의 집을 나서서 묵묵히 연구소로 돌아오고있었다. 영예군인전쟁로병이 로환으로 돌아간지도 여러달이 지났지만 그들의 걸음은 그칠줄 몰랐다.

연구소로 돌아와 영예군인가정방문일지를 펼쳐든 그들의 눈앞에는 영예군인전쟁로병과 혈육의 정을 맺으며 흘러온 나날들이 추억깊이 들이켜졌다.

가정을 찾을적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고지에서 용맹을 떨치던 위훈담도 들려주며 연구사업에서 잠시나마 나약해질세라 힘도 주고 친손자들인듯 오히려 청년들의 건강부터 념려해주며 혈연의 정을 쏟아붓던 로병이였다.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전쟁로병들이 있어 오늘의 삶과 래일의 행복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신념의 기둥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세워준 전쟁로병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어질수록 영예군인전쟁로병에게 바쳐가는 그들의 지성과 진정은 나날이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로병의 건강을 더 잘 돌봐드리지 못한 자책감이 무겁게 고여올랐다.

그날 두정혁동무를 비롯한 초급단체안의 청년동맹원들은 우리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더 잘 돌봐주리라 마음가다듬으며 방문일지에 또 한명의 영예군인의 이름을 써넣었다.

《락랑구역 락랑1동 87인민반 영예군인 최영길…》

이렇게 이어진 길이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쳐갈 일념을 안고 새겨가는 자욱은 아름다운것이다.

영예군인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면 자기들에게도 그만큼 힘이 된다고 하며 하반신마비치료에 좋은 안마기도 마련해주고 새로 나온 소설책도 안겨주며 전정을 기울인 청년들이였다.

영예군인과 혈육의 정을 맺어온 나날들에 그들은 끊임없는 비약의 나래를 펼치였다. 두해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은 물론 오늘까지 그들은 당의 뜻을 받들어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적극 찾는것은 그들만이 아닌 연구소의 모든 청년연구사들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고있다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혁명선배들의 애국의 넋을 심장에 간직한 연구소의 청년연구사들이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에도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해가리라는 확신을 가질수 있었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종달온천에 새겨진 동지적사랑

선천군 읍 162인민반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리광성동무의 생활에서

지난 3월초 어느날 선천군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리광성동무가 쌍지팽이를 짚고 탈천영예군인료양소에 입소하여 이곳 의사, 간호원들과 반가운 상봉을 하였다.

사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세바퀴차를 타고 료양소걸음을 하군 하였다. 그러던 그가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리광성동무를 담당한 김명진동무로 말하면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인민군대에서 군의로 복무하다가 료양소에 갓 배치된 30대의 젊은 의사였다.

이런 그가 지난해 료양치료를 온 리광성동무를 처음으로 담당하였을 때 광성동무는 걱정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치료경험도 별로 없는 의사가 나를 제 일으켜세울수 있을가?)

하지만 리광성동무는 김명진동무의 가슴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불덩어리가 이글거리는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김명진동무는 리광성동무를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조국보위초소에서 생사를 함께 한 전우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김명진동무이기에 하루에도 많은 특류영예군인들을 치료하느라고 눈코뜰새없이 바빴지만 조금도 지치거나 힘든 기색이 없이 언제나 밝은 인상으로 리광성동무를 대하군 하였고 치료에 지극한 정성을 쏟아부었다.

언제인가 김명진동무가 집에서 새 자전거를 가지고나와 회복치료에 리용하라고 리광성동무에게 안겨준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만류하는 리광성, 안명애부부에게 김명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광성동지를 남이라고 생각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김명진동무의 이 뜨거운 진정앞에 그들은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리광성동무를 위하는 김명진동무의 마음은 광성동무가 집으로 떠나간 다음에도 변함이 없었다.

김명진동무는 수시로 리광성동무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병상태를 알아보고 치료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김명진동무의 진정어린 노력이 있어 늘 세바퀴차를 타고 료양소에 오군 하던 리광성동무가 올해에는 지팽이를 짚고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리광성동무에게 혈육의 정을 부어준 사람은 비단 김명진동무 하나만이 아니였다.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따뜻이 돌보아주는 이곳 료양소의사, 간호원들속에서 꽃펴난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하기에 리광성동무의 안해 안명애동무는 자기들을 따뜻이 맞이하는 료양소의사, 간호원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땅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온천이 아무리 약효가 좋다 해도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는 료양소의사, 간호원들의 진정에는 비길수 없다는것을 저는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영예군인들곁에는 혁명적동지애를 체질화한 인민의 참된 보건일군들이 있다.

당이 키운 이런 훌륭한 보건일군들이 많기에 우리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그토록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정 영 철

참된 삶의 자욱

황주군인민위원회 부원 김은경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황주군인민위원회 부원 김은경동무가 황주군 읍 245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 김창걸동무에 대하여 알고 그의 집을 처음 찾은것은 근 10년전이였다.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일로 부상을 당하여 영예군인이 된 사연과 건강상태, 치료정형에 대하여 세세히 알게 된 그는 떠나기에 앞서 영예군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한집안처럼 지냅시다.》

그에게는 조국을 지켜 피흘린 김창걸동무가 남같이 여겨지지 않았고 정이 갔던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거의 매일처럼 영예군인의 집에 들려 몸상태도 알아보고 때식도 보살펴주었다.

이러한 그에게 언제인가 김창걸동무가 맡은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집안일도 돌보느라 몹시 바쁘겠는데 자기까지 짐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였다. 그때 김은경동무는 말하였다.

《저를 키워 대학공부까지 시켜주고 인민을 위한 중요한 일터에 세워준 당의 은덕을 내 어찌 순간인들 잊겠습니까. 그때부터 항상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당의 뜻을 더 잘 받들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예요.》

이것은 그의 진심이였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늘 바쁜 속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 그를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었다. 시기마다 출판되는 혁명적인 도서들과 집에서 마련한 새 액정텔레비존도 가져다주었고 색다른 음식이나 보약이 생기면 영예군인부터 먼저 생각하군 하였다. 일요일과 명절날, 생일날이면 의례히 그는 특식을 마련하여가지고 자기 부모와 남편, 딸과 함께 영예군인가정을 찾아가 노래도 부르면서 그들과 하루를 즐겁게 보내였다.

그는 영예군인의 치료를 위하여 있는 지성을 다하였다. 의료일군들에게서 김창걸동무의 치료에 어떤 약초가 좋다는것을 알아서는 수첩에 착착 적어넣고 그 약초들을 구하기 위해 험한 길도 흔연히 다녀왔다. 그리고 영예군인에게 자주 잉어탕, 닭곰, 토끼곰을 만들어주군 하였다.

참으로 영예군인에게 기울이는 그의 지성은 끝이 없었다.

영예군인이 심하게 앓으면 머리맡에서 정성껏 간호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료양소에 갈 때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주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동구밖까지 따라나가 바래주었으며 며칠에 한번씩 전화로 치료를 잘 받도록 당부하였다.

조주송동무와 그의 안해 정설혼 찾은 청진혈도국 청진청년돌격차승무대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영예군인의 가정을

영예군인의 아들이 남포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온 김은경동무였다.

그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기 전날에 영예군인의 가정에 찾아간 김은경동무는 절절한 어조로 당부하였다.

《영예군인인 아버지처럼 당과 조국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말고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키거라.》

이것은 김은경동무가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늘 자기를 비추어보는 말이다. 하기에 그는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도 앞장섰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도 힘껏 지원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실 불같은 충정을 안고 그는 황주군에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모실 때에도 순결한 량심과 충정을 바치였다.

김은경동무의 뜨거운 진정에 고무된 김창걸동무와 그의 가정은 오래동안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김은경동무가 영예군인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기를 근 10년, 일터에서는 물론 이웃들까지도 그를 영예군인의 친혈육으로 알았다니 영예군인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순결하고 뜨거운것인가.

본사기자 김 진 욱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며 묵묵 삶을 누려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인류의 참다운 리상사회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로씨야의 한 정계인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그 생활력에 대하여, 령도자의 따뜻한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피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있는 조선을 직접 보았다. 현대적인 거리들에 줄지어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는 현실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가 희한한 새 살림집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조선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조선이 문명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아프리카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하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였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병원들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멋진 대중체육봉사기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있다.

참된을 통하여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업적에 대해서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의 심장의 고백,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필승의 기상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가인것이다.

그러나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법칙이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는 과연 어떠한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대변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주의사회가 마치도 《현대문명의 표본》, 《만민평등사회》인듯이 곧잘 외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세계가 제아무리 《문명》과 《자유》를 떠들어대도 그속에 비낀 범죄와 방탕, 타락과 부패의 검은 그림자를 무엇으로 가리울수 있겠는가.

일본은 마치도 저들이 세계적인 《인권선진국》인듯이 자처하며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해나서고있다. 하다면 일본의 인권상황, 사회상이 실지 어떠한가를 몇가지 자료를 통하여 보기로 하자.

일본에서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전반을 커다란 공포와 불안에로 몰아넣고있다.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사라져버린 이 섬나라에서는 친혈육사이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다.

지난해초 일본의 요꼬하마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부모간의 싸움을 말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식칼로 찔러죽이였는가 하면 얼마후에는 사이다마현에서 아들이 함께 살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산송장취급하며 학대하던 나머지 제손으로 살해하는 살인극이 벌어졌다.

또한 일본의 오쓰시에서 살고있던 한 무직건달군은 76살 난 자기 아버지를 전기선으로 목을 졸라매여 살해하였으며 이바라기현에서는 57살 난 남성이 병약한 자기 어머니를 제손으로 목을 졸라죽이는 짐승도 낯을 붉힐 만행을 저질렀다. 더우기 사람들을 아연케 하는것은 자기의 부모를 제손으로 비명횡사시킨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란 꼬물만큼도 없이 오히려 《내가 죽였다.》고 당당하게 뇌까리며 목을 빼드는 인간백정들의 추악한 행태이다.

극단한 개인주의와 인간증오사상에 찌들대로 찌든 패륜아들의 시식장 일본에서는 제가 낳은 자식을 부담거리로 여기면서 학대하다 못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이 례사로운 일로, 보편적인 행위로 되여버렸다.

얼마전 일본의 어느 한 시에서는 부부가 태여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자기의 딸에게 물마저 제대로 주지 않고 내버려두어 영양부족으로 죽게 만든 범죄사건이 밝혀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도꾜에서도 아버지가 태여난지 2개월밖에 안되는 자기 딸이 자주 운다고 하여 매를 안겨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이 도시에서는 부모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5살 난 제 딸자식을 때려죽인 살인행위가 또 발생하였는가 하면 가나가와현에서는 어느 한 녀성이 갓 출산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하여 그 시체를 려행용가방에 넣어 내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러 사회의 경악을 자아내였다.

지난해 일본 오사까부에 있는 어느 한 려관방에서는 목이 잘린 녀성의 머리가 발견되였는가 하면 시가현에서도 어려 토막으로 란도질당한 녀성의 시체가 발견되는 등 소름끼치는 만행들이 때없이 발생하여 온 일본땅을 공포와 불안속에 떨게 하였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존재하고있는 일본에서는 돈을 노린 강탈과 협박행위가 계속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어 무고한 사람들의 한식과 비명소리가 그칠새 없다. 일본뿐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참다운 삶은커녕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 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일본을 비롯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가.

그것은 인류의 밝은 미래는 오직 사회주의에 있다는 력사의 영원한 진리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가 끓게

로산군 읍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신천박물관참관을 조직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에서 감행한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들인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농장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길로 포전으로 달려갔다.

계급교양사업이 심화되는 나날에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이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지금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원쑤들의 심장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고 영 숙

침략자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변하지 않는다

랭전종식후 세계는 미국에 의해 좌우지되는 일극화로부터 다극화의 방향으로 전진하고있다. 그 행정은 대국들간의 모순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필연적과정이다. 일극화를 부지하려는 미국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간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날카롭게 대치되기때문이다.

오늘 군비경쟁의 열풍이 또다시 일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의 군사비가 21세기초에 비해 몇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비를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이 7 170억US$에 달하는 군사예산을 포함시킨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을 작성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위권한법은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 수정하고 군사분야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2001회계년도에 3 000억US$가 넘는 군사비를 탕진하였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두배가 훨씬 넘는다.

미국의 방대한 군사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 대륙들에 전개된 미군기지들과 각종 무장장비들, 국방성을 비롯한 기구들의 유지, 새로운 무력편성과 첨단군사기술개발 등에 마구 탕진된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의 다극화를 가로막고 일극화를 한사코 유지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세계를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제구미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있다. 모든 나라들이 저들에게 순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은 군사비를 힘의 크기처럼 여기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군사비는 항상 제2의 군사비대국보다 몇배로 높았고 주요대국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았다. 오늘에 와서도 역시 같다.

해마다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늘어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어도 군사비만은 계속 증대시키고있다.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조성의 요인으로 되고있는 쌍둥이적자를 어떻게 해서나 줄여보려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벌리며 세계를 소란하게 만들고있다.

빠른 속도로 경제장성을 이룩하고있는 신흥경제국들도 군사비를 해마다 증대시키고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벌어진 미국과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인디아양 등과 그 대양들을 거쳐 다른 지역, 대륙들로 뻗치는 잠재적적수들의 군사적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가로막고 행성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은 중국, 로씨야의 《위협》론을 계속 떠들어대고있다.

최근 미해군 작전부장은 북대서양을 작전무대로 하는 미해군 2함대를 재창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대국들의 군사력경쟁의 시대가 또다시 도래하였고 미국의 안보환경은 보다 심각하고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 2함대를 다시 내오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2함대무활에 적지 않은 군사비가 소비되어야 할것은 명백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군사비축감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미국이 2011년에 해체할 때까지 2함대는 126척의 각종 함선들과 4 500대의 전투기, 9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있었다. 오늘날 미국은 북대서양지역에서 강화되고있는 로씨야의 군사력을 견제한다고 떠들면서 2함대를 부활시키려 하고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지금 형성의 대양들이 모두 예측불가능한 대규모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열점지역들로 변하고있다. 중미, 로미사이의 군사적충돌가능성,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커지고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은 군사기술분야에서 패권을 쥐는데 많은 군사비를 쏟아붓고있다.

현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군사력은 기술적측면에서 취약성을 적지 않게 드러내고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만데로전》에서 미국의 정밀유도미싸일들이 엉뚱한 곳을 타격하고 전투기들이 오폭사건을 수시로 빚어냈다. 신화를 자랑하는 스텔스전투기들이 자그마한 휴대용지대공미싸일에 맞아 격추되는가 하면 최신예무인기들이 다른 나라의 젊은 해커들에 의해 나포되는것과 같은 희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미국의 군사력이 최강이 아니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전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자기 자리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싸이버공간은 물론이고 바다와 하늘, 우주에서의 미국의 지배권이 더는 당연한것으로 볼수 없는 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지금도 역시 같다. 로씨야전문가들은 지난 4월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수리아의 주요대상들을 목표로 삼고 발사하였다고 한 미싸일 105발중 22발만이 명중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 《싸르마트》, 소형핵추진기관이 설치된 순항미싸일은 미국이 수십년동안 숨한 자금을 탕진하며 수립해놓은 미싸일방위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여러 측면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군사기술적취약성을 극복하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은 《3차상쇄전략》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랭전초기에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의 상용무력의 우세에 핵무력으로 대처한다는 《1차상쇄전략》을 내놓았다. 쏘련이 저들과 대등한 핵무기고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미국은 1970년대 중반기에 정밀유도 및 스텔스기술 등의 도입을 통하여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한다는 《2차상쇄전략》을 고안해냈다. 2014년에 발표한 《3차상쇄전략》은 다른 대국들이 첨단무기개발을 다그치고있는데 대응하여 첨단군사기술을 도입하여 무장장비들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싸이버 및 전자전능력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작전지휘체계를 완비한다는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은 미국이 처음 내뱉은것도 아니며 최근에 와서 떠들어대고있는것도 아니다. 《무기의 힘은 평화의 필수요소》라고 떠든 고대로마시기의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의 미국대통령 레간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틀어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미쳐날뛴 전쟁광들의 입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은 궤변이였다.

《평화》의 간판밑에서 미국은 쉬임없이 세계정복전쟁을 벌리고있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미국의 신군국주의:미국인들은 전쟁에 얼마나 유혹되고있는가》와 《아메리카제국: 미국외교의 현 실태와 후과》라는 도서들에서 미국이 대외정책적목표수행에서 외교력이 아니라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적증상을 보이고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책작성자들과 국민의 대다수가 대외문제에서의 군사적힘의 유용성을 과대평가한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랭전종식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미국의 군사적힘의 희생물로 되였다. 지금은 수리아가 또 미국의 군사적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대상들에는 중국, 로씨야 등 미국의 일극화에 도전해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가있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손 영 남

긴장완화분위기를 해치는 위험한 도발행위

온 겨레가 력사적인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북남관계발전의 좋은 분위기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당국이 그와는 상반되게 미국과 야합하여 군사적도발소동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F-22랩터》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들을 끌어들여 미국과 《맥스 썬더》련합공중훈련을 벌리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호전광들은 이 훈련이 《F-15K》, 《F-16》, 《F-22랩터》 등 각종 전투기들과 《B-52》전략폭격기가 참가하는 《대규모의 훈련》이라느니,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공중전기술을 배양》하는 훈련이라느니 하고 떠들면서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한편 《정례적인 훈련》이니, 이미전부터 《계획된 훈련》이니 하면서 이번 훈련의 도발적성격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였다.

하지만 《맥스 썬더》련합공중훈련의 위험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시기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미국과 남조선군부세력은 이 전쟁연습에서 우리를 겨냥한 대규모공중친훈련은 물론 《도발원점타격》과 공중급유훈련, 중요대상물들을 겨냥한 전술폭격훈련, 종심에 침투한 특수부대에 대한 물자보급훈련과 같은 극히 도발적인 내용의 훈련들을 맹렬히 벌리였다.

특히 올해의 《맥스 썬더》련합공중훈련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대수의 《F-22랩터》스텔스전투기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 미국의 악명높은 《B-52》전략핵폭격기가 투입된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고있는 대규모적인 《맥스 썬더》련합공중훈련은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것으로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긴장완화, 조미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 된다. 내외여론들이 이번 훈련이 력대 최대규모로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변함없는 립장의 반영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행동은 어렵게 마련된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불신과 대결만을 조장하게 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리였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배치되게 미국과 함께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선의와 노력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섰다.

우리는 지금껏 과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과감적인 조치들을 거듭 취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그와는 상반되는 행위들이 거침없이 감행되여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리행될수 없으며 북남관계개선은 쌍방이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다같이 노력해나갈 때라야 이룩될수 있다.

판문점선언에 배치되게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는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맥스 썬더》련합공중훈련은 명백히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해치고 겨레의 기대와 념원을 짓밟는 반민족적행위이다.

태세의 호름에 역행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은 온 겨레의 단죄규탄을 면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내외호전세력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로씨야 미국과 서방을 비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이딸리아잡지 《빠노라마》와의 회견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때문에 국제정세가 더욱더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국제정세가 격화되고 보다 예측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한 일부 서방국가들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행위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결과 히세나 실책의 대가가 전지구적인것으로 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서방의 행동에 대해 더욱더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서방나라들이 건전한 사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란 미국의 위협에 맞서나갈 립장 표명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이 최근 미국의 위협책동에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란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란무장력은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고 특히 미사일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적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은 미국의 탈퇴가 이란에 있어서 좋은 징조로 된다고 하면서 국방력강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릴 립장을 밝혔다.

이란무력 총지휘참모장은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무력으로 담보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 미국대사관이설을 반대하여 시위, 이스라엘군 야수적으로 탄압

이스라엘강점자들이 미국대사관이설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해말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텔 아비브로부터 미국대사관을 꾸드스로 옮기기로 선포한 미국이 14일 《이스라엘독립》 70년을 계기로 그 개관식을 강행하였다.

이날 가자지대에서는 미국대사관의 이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100만명 팔레스티나인들의 행진》으로 불리운 이 항의시위에는 청장년들과 녀성들, 아이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이스라엘군 병사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압책동을 규탄하고 대사관을 꾸드스로 옮긴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방대한 무력을 적수공권의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에 내몰았다.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살륙만행으로 60여명이 살해되고 약 2 800명이 부상당하였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의 한 관리는 구급차들과 의료일군들 역시 이스라엘강점자들의 과녁으로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강점자들의 야만적인 대량살륙만행을 규탄배격하고있다.

미국의 제재책동 배격

베네수엘라제헌의회의 의장 델씨 로드리게스 고메스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배격하였다.

미제무성이 베네수엘라인들이 운영하고있는 국내외의 20개 회사들을 제재명단에 새로 올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러한 제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시종일관 국제법을 유린하면서 일방주의를 일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역세력을 단호히 심판할것을 호소

지난 12일 남조선의 대학생진보련합, 국민주권련대, 《자유한국당》규탄시민련대 성원들이 초불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역도가 정계에서 물러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의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퇴출시키고 판문점선언 리행하자》, 《홍준표 정계퇴출》, 《저질망언 지겹구나, 없어져라 적폐정당》 등의 글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통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환영의 분위기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유독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만이 선언을 깎아내리고 시비질하며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준렬히 폭로단죄하였다.

그들은 친일과에 뿌리를 두고있는 《자유한국당》은 력사적으로 온갖 반민족적만행을 저질러왔다고 성토하면서 그 모든 죄행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반역세력을 징벌하고 청산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유한국당》이 그를 방해하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하겠지만 그것은 헛된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홍준표는 지금까지의 망언과 망동을 책임지고 정계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속에서도 《홍준표는 민중의 적, 초불이 심판하자.》고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본사기자

동네북신세가 된 《자유한국당》

최근 남조선에서 북남수뇌상봉이후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악랄하게 헐뜯어대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어기저기서 얻어맞는 동네북신세가 되고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모독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저주를 퍼붓고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변인들은 론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판문점선언을 북이 불러준대로 받아쓴 선언문이라고 비꼬는것은 인륜을 벗어난 행동이다.》, 《민심을 거역하고 전쟁과 핵무장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은 력사에 부끄럽지 않은가.》고 단죄하였다. 지어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까지 《판문점선언을 못 믿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전쟁마귀이다.》, 《자유한국당이 전쟁위협속에서만 존재하겠다는 행태야말로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하면서 더 늦기 전에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국우익보수떨거지들의 망발들을 규탄하고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홍준표와 라경원은 어처구니없는 병에 걸렸다.》, 《교질적인 대결광증에는 약이 없다.》,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네트들에도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분탕질이다.》, 《평화와 공존, 화해와 통일을 막아보려는 자유한국당은 력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이다.》, 《위장평화쇼타령만 하다가 위장병이 도질수 있다.》, 《평화로운 세상을 등지고 충격과 포성이 그립다면 이 땅을 떠나라.》 등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규탄, 조소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오르고있다.

《자유한국당》내에서까지 북남수뇌회담을 악에 차서 비방해나서는 홍준표와 소속의원들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자유한국당》소속 일부 의원들은 《색갈론으로 지방자치제선거를 치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남북정상회담으로 격동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례의도 없는 작태이다.》, 《자유한국당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홍준표를 공격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어쩌할바를 모르겠으면 민심을 따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대결광동을 즉시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1)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최근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4월 20일 미국무성이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계속 《인권옹호자》의 역을 놀면서 《도덕적인 재판관》으로 자처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문제와 인권상황에 대해 제멋대로 비난하고 황당하게 평가하면서 마치도 이 세상에 미국의 인권상황만이 제일 완벽한듯이 놀아대고있다.

2017년을 돌이켜볼 때 조금이라도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국자체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더러운 행적으로 얼룩지고 지속적인 악화추이를 보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2017년 10월 1일 라스 베가스시에서 미국헌대력사상 가장 엄중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약 6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였다.

—2017년 8월 일부 백인지상주의자들이 샬러쯔빌시에 모여 나치스구호를 웨치면서 《묵수집회》를 가졌다.

—미국잡지 《어틀랜티크 만슬리》페브싸이트와 신문 《뉴욕 타임스》페브싸이트 등에 의하면 미국학자들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쇠골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며 돈속에 파묻혔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전국면죄기록쎈터가 2017년 3월 7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살인음모죄로 오판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7배, 마약범죄자로 오판될 가능성은 백인들보다 12배 높다. 똑같은 죄행에 대해서도 아프리카계 남성범죄자의 형기는 백인남성범죄자에 비해 평균 19.1% 길다.

—미국경제정책연구소가 2017년 2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백인가정의 평균재부는 아프리카계 가정보다 7배이상 많다.

—영국신문 《가디언》페브싸이트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페브싸이트가 2017년 12월에 전한데 의하면 미국에서는 5 230만명이 경제빈곤지역에서 생활하고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2017년 12월 11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에서는 어린이빈궁자수가 이 나라 어린이수의 18%를 차지한다.

1. 엄중히 침해당하는 공민의 권리

미국에서는 폭력범죄가 증대되고 총격사건이 계속 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 경찰들의 폭력적인 법집행활동으로 인해 항의시위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정부가 개인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유권리를 제멋대로 침해하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폭력범죄률이 매우 높다.

미련방수사국이 2017년 9월에 발표한 《2016년 미국범죄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 발생한 폭력범죄건수는 약 120만건으로서 2015년에 비해 4.1% 늘어났다. 이것은 주민 평균 10만명당 386.3건 일어난것으로서 2015년에 비해 3.4% 증가한것이다. 2015년에 비해볼 때 살인음모죄는 8.6%, 강간사건은 4.9% 늘어났다.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다.

뜨연구쎈터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조사대상의 3분의 2가 자기들의 집에 총기류를 두고있다고 인정하였다.

미련방수사국의 《2016년 미국범죄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73%가 총기류와 관련된것들이다.

미국총기류폭력문서실이 발표한 《2017년 총기류폭력에 의한 사상자통계자료》에 의하면 12월 25일현재 전국적으로 6만 91건의 총격사건이 일어나 1만 5 182명이 목숨을 잃고 3만 619명이 부상당하였으며 그중 대규모총격사건수는 338건에 달한다.

2017년 10월 1일 저녁 64살 난 백인범죄자가 라스 베가스시에 있는 만달레이 베이호텔의 32층에서 호텔맞은켠의 야외음악회장에 모인 수만명의 사람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였다. 사격은 10—15분간 지속되였으며 약 60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하였다. 이것은 미국헌대력사상 가장 엄중한 총격사건이다.

사건후 경찰들은 범죄자가 사격을 가한 호텔방과 그의 집에서 42정의 총과 수천발의 총탄 및 폭발물을 발견하였다.

11월 5일 텍사스주의 써덜랜드 스프링즈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죽고 20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사상자들의 나이는 5살부터 72살까지이다.

경찰들이 법집행권한을 람용하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1 066만 2 252명(교통질서위반행위는 포함되지 않음)이 법기관에 체포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페브싸이트에 게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미국에서는 987명이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페브싸이트가 2017년 7월 26일 보도한데 의하면 2명의 경찰이 체포령을 집행하던 과정에 주소를 헛갈려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뜨연구쎈터가 2017년 1월 11일 공개한데 의하면 지난 2년간 근 5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였다.

신문 《후핑톤 포스트》페브싸이트가 2017년 11월 7일 보도한데 의하면 뉴욕에서 2명의 경찰이 마약을 수색하던 과정에 태마를 숨긴 녀성을 경찰차안에 억류해놓고 룬간하였다.

경찰들의 폭력적인 법집행활동으로 인해 항의시위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2017년 2월 22일 저녁 수백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날 당직성원이 아닌 한 경찰이 여러명의 청소년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총을 쏜 사건에 항의하였다. 경찰측은 23명의 항의시위자를 체포하였다.

9월 15일 저녁 아프리카계 남성을 사살한 이전 백인경찰이 이날 무죄로 석방된것과 관련하여 쎈트 루이스시에서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으며 32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였다.

항의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련이어 살해당하고있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인터네트를 통해 개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페브싸이트가 2017년 9월 13일 보도한데 의하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미국의 국경검사소에서 손전화기와 콤퓨터를 강제수색한 회수는 약 1만 5 000차로서 2015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8 383차 늘어났다.

영국신문 《인디펜던트》페브싸이트가 2017년 9월 27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덴버종합대학의 한 법학부교수는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통제가 언론의 자유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물부족현상

현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물부족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유엔아동기금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앞으로 2040년까지 약 6억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36개 나라들에서 물문제가 위험단계에 이르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실지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시에서 지난 3년동안 비가 적게 내린 결과 최악의 가물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물부족현상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보고있다.

그중의 하나는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삶의 터전과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식량위기와 물위기를 조장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가물현상이 지속되면서 물자원이 고갈되여가고있다.

강과 호수, 저수지들이 말라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로씨야의 바이깔호의 물면이 60년래 최저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가물로 하여 물면이 낮아지면서 호수기슭의 바닥이 드러나고 희귀한 물고기들이 알을 쓸며 서식하던 얕은 수역이 사라지고있는 등 생태환경이 파괴되고있다.

다른 하나는 급속한 인구장성이다.

유엔은 현세기 중엽에 가서 세계인구가 98억명에 달할것이며 도시인구는 지금보다 31억명 더 늘어날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날로 늘어나는 인구수와 함께 물자원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제일 중요한 원인들중의 하나는 여러 나라들에서 처리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강으로 흘려보내는 오수와 공업폐수로 하여 얼마 안되는 물자원마저 심히 오염되고있는것이다. 불결한 물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물위기가 가져오는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저애할뿐아니라 사회적불안정을 조성하고있다.

소말리아에서는 우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싸움에서 남편을 잃은 녀인을 뜻하는 《우물과부》라는 낱말까지 생겨났다.

물자원쟁탈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나라들사이의 마찰로 번져지고있다. 이미전에 세계은행은 20세기가 원유분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분쟁시대가 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어른들이 물문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처럼 물위기는 세계적으로 매우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물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자원을 보호하며 새로운 물원천을 찾아내는 등 물문제해결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중국에서 심주민들의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다물을 민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현재 약 500개의 섬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절반이상이 짐배로 물을 공급받고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중국정부는 가까운 앞날에 바다물정제능력을 5배이상으로 높일것을 계획하고있다. 그에 따라 국내의 연안지대들과 도시들에 바다물정제시설들 약 100개가 건설되거나 현대화되게 된다.

뜨란다정부는 주민들의 물수요를 충족시키며 먹는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적범위에서 상하수도망건설을 끝낸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미비아정부는 남부의 농촌지역들에 깨끗한 물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양열 및 풍력에네르기를 리용하는 2개의 지하수정제봉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베루에서는 물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단체들을 다시 내오고 천만한 사업조건을 보장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물고생을 하지 않도록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오수를 재처리하고 비물을 수집하여 리용하고있다. 물문제의 심각성과 그 후과에 대해 알려주고 물절약정신을 심어주는 등 모든 사람들이 물문제해결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물의 가치를 잘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물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에만 심각한 물부족현상을 극복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ㄱ-810776(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